

# 6·25전쟁 초기 춘천지구 전투의 재분석과 평가

이성춘\*

## 요 약

6·25전쟁 초기 방어전투 중 유일하게 성공한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 하여 전투 성공요인과 의의를 재평가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분석된 사항으로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맞서 초기 방어전투의 성공적인 면과 북한군의 단기속결 의도를 좌절시킨 전투로 집중 조명되어졌다. 이번 연구는 북한군 남침 작전계획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하여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연계하여 적전술의 입장에서 재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춘천지구 전투가 6·25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한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초기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이 분쇄하였다는 점에서 전술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춘천지구 전투는 춘천이라는 일개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초기 방어전투를 떠나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좌절시켜 북한군의 전쟁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 '결정적 전투'로 재평가 받아야 될 것이다.

## A Re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huncheon District Battle In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LEE SUNG CH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evaluate the success factors and significance of the batt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nly successful Chuncheon district battle during the defense combat in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The research results are the matters that ar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intensively on the successful aspect of the early defense combat against North Korean army's surprise invasion of the South and on the battle that thwarted the North Korean army's intensive surprise attack inten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reanalyze the Chuncheon District Battle in connection with the Kim Il-sung's strategic course of a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operation plan of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In other words, it is to reanalyze the enemy tactics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n army's plan of invasion of the South.

The fact that the 6th Division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estroyed the North Korean army's operations plans that were in accordance with Kim Il-sung's strategic plans has more significance than a simple tactical success. The Chuncheon District Battle should be reevaluated as the "decisive battle" which went beyond a successful early defense combat in a Chuncheon region, and which fundamentally defeated North Korean army's war plan itself by thwarting the Kim Il-sung's strategic plan.

**Key Words : Chuncheon District Battle, Kim Il-sung's strategic, decisive battle**

접수일(2015년 6월 15일), 수정일(1차: 2015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2015년 6월 30일)

\*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조교수

## 1. 서 론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민족적 비극을 상기하게 된다. 회갑이 훨씬 지나버린 전쟁에 대하여 전후 세대들은 서서히 잊혀진 전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에게는 물론 학자들에게까지 각광받는 연구 소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소재 자체를 진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 ‘맥아더, 리지웨이, 밴플리트’ 등 유명한 미군 장군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투영웅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무명용사와 소부대 전투의 진정한 전투영웅들은 망각한지 오래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6·25전쟁 초기 방어전투 중 유일하게 성공한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투 성공요인과 의의를 재평가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분석된 사항으로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맞서 초기 방어전투의 성공적인 면과 북한군의 단기속결 의도를 좌절시킨 전투로 집중 조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 [1] 과 연계하여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함으로써 초기 방어전투의 의미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6·25전쟁 초기 방어전투 중 중부전선 춘천지구 전투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문헌 중심적 서술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조선전사,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각종 문헌과 전투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북한군 남침계획과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

북한의 공격계획은 1950년 4월 15일경 북한 인민군을 육성한 스탈린노프 소장을 비롯한 소련 군사고문관이 소련으로 모두 철수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 독·

소전의 영웅이자 작전전문가로 전투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 중장 등 새로운 군사고문관이 북한에 들어와서 남침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 작전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 [3] 되었다.

### 2.1. 남침계획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 [4] 하고 복귀한 후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북한군 총참모부에 지시하였다. 이에 총참모부장 강건과 소련의 바실리에프 군사고문단장이 중심이 되어 공격계획을 완성하였다. 5. 27일 스티코프 보고에 의하면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작성한 전반적인 공격계획을 승인하였다고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공격 시기에 대해서는 6월말 공격을 선호하였다. [5] 남침계획은 6월 16일에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고되었고 그도 남침계획에 동의하였다. 남침계획의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으로 전쟁개시 2일차에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었다. 한국군의 주력을 소멸한 후에 미군의 증원이 있기 전에 신속히 남하하여 남한 전체를 점령하고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여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이 북한의 전쟁목표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침계획에 한국군을 우회·포위·섬멸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기본목표와 전략 및 전술개념에 의거하여 북한군은 서울 북방 서부지역에서 한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금천~개성지역, 연천~철원지역, 화천~양구지역에 주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군의 1차 작전방침은 한국군을 짧은 시간 안에 우선적으로 소멸하고 차후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작전방침이었다. [6]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서울을 2일차에 신속히 점령하고 한강이북에 전개된 국군 전방사단의 주력을 격멸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그 후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 하에 3단계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 그 결과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7]

북한군의 남침계획은 총 3단계로 작성되었으며, 제1단계는 최초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단계로서 전쟁 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작전중심은 38도선으로부터 수원-원주-삼척을 연하는 선까지 약 90km를 5일 만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제2단계는 국군 증원 병력을 격멸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군은 작전중심을 군산-대구-포항을 연하는 선까지 약 180km를 14일 만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대편성이나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8] 되었다. 제3단계는 국군의 잔류 병력을 소탕한 후 신속히 남해안으로 진출하여 주요 항구를 점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군은 부산-여수-목포를 연하는 선까지의 작전중심 80km를 10여일 만에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미군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미군 증원에 대비하여 남해안의 주요항구를 신속히 점령하여 미군이 한반도에 교두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쟁 간에 노획한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과 남침계획을 도표로 작성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북한군 3단계 작전계획 및 정보계획 [9]  
목표

작전단계	정보계획 목표	진출선	작전중심	작전기간
제1단계 방어선 돌파 및 주력섬멸	· 전방 방어체계 · 서울 방어조직 · 예비대 투입	수원-원주-삼척	90 km	5일
제2단계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	· 후방 방어진지 · 사단 전방이동 · 증원부대, 물자유입	군산-대구-포항	180 km	14일
제3단계 소탕작전 및 남해안 전개	· 접근로상 방어조직 · 항구 작업활동 · 항구의 방어대책	남해안 지역	80 km	10여일

\* 출처 [10]

남침계획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제1단계 작전간 북한군은 서울점령과 국군 주력의 섬멸이라는 2개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 점령을 위해서는 북한군은 제1군단에 의해 한강이북에서 1차 양익포위를 하고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서로 협조된 공격 하에 한강이남에서 다시 한번 2차 양익포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에 배치된 국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는 2일차 제1군단과 제2군단의 고속기동부대를 통해 한강고 조기점령과 수원이남 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2일차에 홍천에서 원주로 투입되는 1개 보병사단이 국군 전선을 동서로 양분시켜 상호지원이 불가하도록 한 후에 각격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총참모부는 북한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 집단으로 편조하였다. 그 중 제1군단을 주공으로써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도록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양구에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1] 즉 1단계 작전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춘천지구 전투를 남침계획과 연계하여 보면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기 위한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 2.2.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

김일성은 북한군에게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전쟁의 성격 [12], 전략계획과 전쟁승리의 요인, 조성된 군사정치 정세, 군사전략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우선적으로 전쟁의 성격 [13]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인민적인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였으며, 전략계획으로는 미군투입 [14]을 염려하여 우선적으로 미군의 증원부대가 전개되기 이전에 속전속결로서 전쟁개시 2일차에 수도서울을 점령하여 조기에 승리를 굳히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6·25전쟁 공간사인 『조선전사 25』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미군투입을 우려하면서 인민군의 정치도

덕적 및 전략전술적 우세를 강조하면서 미군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한달내지 한달반의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한달만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속전속결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조성된 군사정치 정세면’에서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군사전략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적을 우회하여 포위소멸 할 것과 이를 위하여 산악전과 야간전,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을 잘 배합하는 배합전 과 인민군 및 남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업을 널리 강조하였다. 아울러서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후방지역을 공고히 할 것을 제시 [15] 하였다. 이러한 관철방안은 현재까지도 북한군의 주요한 전략전술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김일성은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기간 중 실천하여야 할 “인민군대에 대한 전인적 원호사업을 조직하며 인민군대를 계속 증원 할 것” 등 주요사항을 강조하였다. [16]

### 3. 개전초기 방어전투와 춘천지구 전투

서울을 목표로 정한 북한군의 주공 제1군단 [17] 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으며, 춘천, 강릉을 목표로 한 조공 제2군단은 화천-춘천 접근로에 중점을 두고 사전 계획된 축선을 따라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국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남진을 계속하였다. [18]

개전초기 방어전투는 중동부 전선의 춘천지구 전투 분석을 고려하여 서부전선 지역의 전투 중 관련성 있는 동두천·포천지구와 개성·문산지역 전투위주로 분석하였다.

#### 3.1. 서부지역 방어전투

##### 3.1.1. 동두천·포천지구 전투

적 주공이 지향하는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 정면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

4사단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각각 제109·제107전차연대와 보전협동 하에 전격적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사단장 유재홍은 전방에 추진된 경계부대로 하여금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도록 하고 주방어진지에 병력투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정부에서 훈련 중이던 2개 연대 주력이 감악산으로부터 천주산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도로를 따라 우회하여 제3사단은 25일 오전 중에 포천을 점령하고, 제4사단은 25일 해질 무렵 동두천 시내에 진입했다. 개전초일 동두천과 포천을 적에게 피탈 당함으로써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위태롭게 되었다. 의정부의 위기는 수도서울의 의기와 직결되므로 육군본부는 서울북군에 주둔한 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의정부 지역에 긴급 투입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려 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제2사단, 대구의 제3사단, 광주의 제5사단이 대대단위로 황급히 출동했으나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육군참모총장은 제7사단장과 제2사단장에게 동두천과 포천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제7사단 제1연대(-)는 동두천을 탈환하였으나 제2사단의 포천공격이 실패하자 동두천에 진입한 부대들의 퇴로가 차단되어 분산·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 하에서 의정부 북쪽 금오리에 포진한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장 김몽익 소령은 제2포대장 장세풍 대위 등과 함께 적의 전차를 공격하던 중 장렬히 전사 [19] 했다.

##### 3.1.2. 개성·문산지역 전투

수도권에 이르는 북서 접근로인 개성-문산-서울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국군 제1사단이 청단에서 교량포까지 약 94km에 달하는 광대한 정면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 지역은 북한군 203전차연대(-1)의 지원을 받는 제1사단과 제6사단(-1)이 공격해 남침 당일 임진강과 한강변까지 남하했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38선 진지에서 철수해 임진강 남쪽의 주저항선에 배치하는 한편 예비연대를 증원해 방어선을 강화했다. 제12연대의 주력이 임진강 철교를 건너 철수한 후에는 교량을 폭파할 것을 명령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경의선을 통한 양호한 접근로를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사단은 적의 공격 1일차에 비록 제12연대가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분산철수를 하였지만 임진강에 연한 방어진지를 확보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 3.2. 중동부전선 : 춘천지구 전투

춘천·홍천 전투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동부 전선의 화천-춘천 축선과 인제·홍천 축선에서 한국군 제6사단과 북한군 제2군단 [20]의 제2, 12사단 및 제5사단연대,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와 방어전투를 지칭한다. 춘천지구 전투는 북한군 제2군단(총참모부 조공군단)이 수행하였던 전투로서 적전술상 북한군의 승패가 달려있는 전투였다. 왜냐하면 북한군 전술에 의하면 주공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공의 임무가 선행되었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조공이 포위공격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한국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는 남침계획이었다.

#### 3.2.1. 북한군 제2군단 공격계획

중동부 지역의 제2군단 공격계획은 주공으로 제12사단을 인제-홍천 축선에, 조공으로 제2사단을 춘천-가평 축선에 투입하여 군단 정면의 한국군을 격멸하고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고속기동부대로 운용하여 서울을 우회 기동으로 포위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원 이남을 점령하고 한국군의 퇴로 및 병력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동해안 지역은 제1경비여단과 특수부대인 제766유격부대와 해군 제945육전대를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한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이 춘천-홍천 축선 공격계획을 살펴보면 1일차에 가평-내삼포리(홍천 동북방 9km)를 점령, 2일차에 제2사단은 덕소에서 한강을 건너 한강 이남에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603모터사이클 연대는 홍천에서 제12사단을 초월하여 수원을 점령함으로써 국군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게 되어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천-홍천 축선에 투입된 제2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5보병사단,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북한군 적전술 개념에 의거 김일성의 전

략적 방침과 연계된 작전계획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군 2군단 작전계획 [21]

구분	제1제대		고속기동부대 (제603 모터사이클 연대)	제2제대 (제5 보병사단)
	주타격 (제12 보병사 단)	보조타 격 (제2 보병사 단)		
김일성 전략적 방침	우선적으로 미군의 증원부대가 전개되기 이전에 한 달만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속전속결 전략, 이를 위하여 반드시 적을 우회하여 포위소멸, 산악진과 야간진,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을 잘 배합하는 배합진 실시, 인민군 및 남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업을 널리 강조 및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후방 지역 공고화			
2군단 공격계 획	북한군 보조타격으로 제12사단을 군단의 주타격으로 인제-홍천 축선에, 제2사단을 보조타격으로 춘천-가평 축선에 투입하여 군단 정면의 한국군을 격멸하고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고속기동부대로 운용하여 서울을 우회 기동으로 포위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원 이남을 점령, 한국군의 퇴로 및 병력 증원을 차단			
부대별 작전 계획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출 홍천 점령한 후 수원-여주 간 도로차단, 모터사이클연대 좌측방 엄호, 홍천-여주 방면 진출, 국군의 퇴로 및 증원차단	춘천-가평을 점령한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증원차단 및 제1군단의 좌측방을 방호	2일차에 홍천 지역 투입, 이천 방면으로 진출, 수원 점령, 서울로부터 국군의 퇴로 차단기여, 병참선 차단	군단 예비 제1제대 인제12보병사단 공격개시 후 홍천 지역에서 투입, 전과 확대, 후방사단 증원차단
부대 운용	최초 3개 연대 투입 및 병진공격	최초 2개 연대 병진 공격, 1개 연대 예비 (17연대)	주공사단 (제12보병사단)후속, 홍천에서 투입 후 수원 방면으로 진출	제12보병사단 후속, 포병연대는 제12보병사단 배속 지원

#### 3.2.2. 한국군 제6사단 방어계획

북한군 제2군단의 정면에 배치된 제6보병사단 [22]은 좌로는 적목리(가평 서북방)로부터 우로는 진흥동(현리)까지 약 84km에 이르는 광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6사단의 임무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 및 방어전투를 전개하며 예상되는 적 주력의 동측방에 대한 위협을 견제하고 제7보병사

단 우전방에 대한 화력지원 실시로 주작전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 되도록 한다.” [23] 육본의 지침에 따라 사단은 전쟁 한달 전 사단의 방어계획을 <표 3> 과 같이 완성하였다.

<표 3> 한국군 제6사단 작전계획

구분	제1제대		화력 (제16포병대대)	예비 (제19보병연대)
	좌 (제7보병연대)	우 (제2보병연대)		
작전개념	38선 고수 및 회복을 위한 지역 방어로써 방어진역을 3개의 방어선으로 설정 [24] 하고 전방 방어작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 격퇴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	사단예비 상황 발생 시 춘천으로 증원
부대운용	2개 연대는 전방에, 1개 연대는 예비로 편성, 적의 주공방향을 화천-춘천 축선으로 판단하여 주노력방향을 춘천으로 하고 적이 공격하면 사단예비를 증원하여 소양강변에서 적을 조기에 격멸한 후 반격을 감행하여 38선을 회복		춘천에 배치 5개소에 포진지구축	원주에 집결하여 교육훈련과 부대 정비 중
	좌측(가평)에 제3대대, 우측(춘천북방)에 제2대대를 배치하고 제1대대는 예비로 춘천에 집결 철근콘크리트 진지 9개 지역 설치	좌측(홍천)에 제1대대, 우측(현리북방)에 제3대대를 배치하고 제2대대는 예비로 홍천동북 3km 지점인 당포리에 집결 철근콘크리트 진지 미구축, 통나무 유개호, 철조망, 대인지뢰 매설 전투		

### 3.3. 전투경과

한국군 제6사단 정면으로 공격해온 적은 북한군 제2군단으로 예하 제2사단은 화천에서 춘천방향으로, 제12사단은 인제에서 홍천방향으로 각각 공격했다. 춘천·홍천지역 전투는 주로 춘천정면과 홍천북방 2개 장소에서 전개되었다. 적 제2사단은 공격이 시작되자 제4연대를 국군의 방어선의 정면에 투입하고 제6연대를 북한강 계곡으로 은밀히 침투시켰다. 아군 제7연대는 병력과 장비가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산악지대의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에게 타격

을 주면서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화천과 춘천을 잇는 도로상의 모진교 [25] 는 북한군 기계화부대가 북한강을 건너 춘천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교량이다. 그러나 모진교 폭파에 실패한 제7연대는 전쟁초기 적의 SU-76 자주포의 위세에 밀려 전방방어선이 피탈 당하였으며, 급히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의 자주포가 아군의 57mm 무반동총의 사격에도 파괴되지 않자 연대 대전차포 소대장 심일 소위는 육탄공격방법 [26] 으로 북한군 자주포 2문을 파괴하자 한국군 장병들은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정면공격을 반복하였다. 이에 맞서 제6사단 16포병대대가 한국군 포병에 최초로 도입된 화집점에 의한 사격법을 적용하여 105mm 곡사포의 정확한 지원사격으로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북한군 제2사단은 예비대로 있던 제17연대를 투입하여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했으나, 아군 제7연대의 성공적인 방어작전으로 1일차에 소양강을 도하하지 못하였다. 적은 공격당일 춘천점령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실시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전쟁 2일차인 6월 26일 춘천 정면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양강을 넘어 진출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16포병대대의 정확한 포격에 의거 공격이 지연되자 북한군 제2군단장은 홍천방향으로 공격하던 제12사단의 일부를 춘천 방향으로 전환시켰으나 2일차에도 소양강을 넘지 못했다. 북한군은 선두 돌격제대가 격멸되면 신속히 후속제대를 투입하는 등 정면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춘천지구 전투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는지를 새삼 알 수 있다. 전쟁 3일차 27일에 북한군 제2사단은 제12사단 제31연대와 합동으로 춘천을 탈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춘천을 점령하였다. 한국군 제6사단은 열세한 병력으로 선전분투 하였으나,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하기 곤란한데다가 육본의 전선조정 명령에 의거 원창고개 일대에 제7연대 2대대병력을 배치하여 철수를 엄호토록 하고 홍천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국군 제6사단은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춘천을 확보하면서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 4. 춘천지구 전투 분석과 재평가

춘천지구 전투는 한국군 제6사단이 단독으로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6일간이나 지연함으로써 한강방어선 형성 및 미 제24사단이 증원여건을 보장하였던 대단히 의미 있는 전투이다. 춘천지구 전투에 대한 학술연구 자료 및 단행본에서는 중요한 초기 방어전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학술연구나 전사부분에서는 주로 전투승리의 요인, 북한군의 패배요인, 작전결과의 피아분석 및 평가, 작전의 성격과 결과, 초기전투와 한국군의 리더십 등 위주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이나 북한군 적진술에 입각한 분석 및 평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춘천지구 전투의 결론적인 사항은 개전초기 한국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이며 한국군이 장차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많은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내용 및 평가결과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의 입장에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한 분석을 통하여 재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하여 재분석함으로써 초기 춘천지구 전투 의의를 더욱 값지게 조명하고자 한다. 서부전선 및 동부전선에서는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들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일정부분 전쟁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지구 전투에서는 김일성의 이러한 전략적 방침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전쟁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전사를 재분석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학술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 4.1. 김일성의 분야별 전략적 방침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하여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표 4> 김일성의 분야별 전략적 방침 [27]

전략적 방침	우선적으로 미군의 증원부대가 전개되기 이전에 한달만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속전속결 전략, 이를 위하여 반드시 적을 우회하여 포위소멸 할 것, 산악전과 야간전,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배합전 실시			
적진술 분야별 구분	속전속결 및 타격작전 실시, 한국군 우회 포위하여 유생역량 철저히 소멸 및 미군 증원부대의 저지	산악전과 야간전투 강조	배합전	각군 및 계병과의 효율적 이용
	미제 국주의자들의 대병력 증강 전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타격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시일 안에 격멸소탕, 우회 포위하여 적을 완전히 소멸 → 철저히 소멸하지 않을 경우 전략적 방침 관철에 지장	산이 많은 군사적 효과적 이용, 적의 수단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함	대부대와 소부대 작전 결합	군종, 병종 종합적 이용, 현대전의 합법적 요구, 포의 집중성과 기동성 보장

\* 이외에도 전략적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안의 문화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전투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정치사업 강화할 것, 후방지역 공고화를 강조하였으나 연구목적상 분석에서는 제외함.

### 4.2. 김일성의 분야별 전략적 방침과 연계한 춘천지구전투 재분석

현재까지의 모든 춘천지구의 전투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였지만 북한군의 입장에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한 재분석은 없었다. 재분석의 분야별 주제는 앞에서 제시된 적진술 분야별 구분 순서에 의거 재분석하였다.

#### 4.2.1. 속전속결 및 연속적인 타격작전 실시, 한국군 우회포위하여 유생역량 철저히 소멸 및 미군 증원부대의 상륙을 저지

김일성은 전략적 방침에서 미군이 “대병력을 증강하기 전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타격으로써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시일 안에 격멸소탕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하여 미제 침략군 증원부대의 상륙을 막는 것” [28]

이었다. 북한군 제2군단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화력과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및 연속적인 타격작전을 뒷받침 하여주지 못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에 의하면 제2군단의 주타격사단인 제12사단은 “최초 공격시 거둔 전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채 진격속도를 늦추었으며, 이로 인하여 패주하는 적에게 춘천 방어선을 구축할 여유를 주었다. 그 결과 사단 이하 공격부대들은 조직적 저항으로 인하여 고전” [29] 하였으며, 보조타격사단인 제2사단은 “제4연대와 제6연대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격에 실패한 채 최초의 계선에서 전투를 지속” [30] 하였다. 또한 “제12사단은 제2보병사단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사단과 합동으로 춘천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31] 이와 같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보고서만 살펴봐도 적 2군단이 김일성이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전략적 방침의 하나인 연속적인 타격작전을 실시하여 적을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미군 증원부대의 상륙을 저지시키겠다는 작전 계획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적 제2군단이 주타격군단인 적 제1군단보다 신속하게 진출하여 서울-수원축선에서 한국군을 포위 공격하여 국군의 90% 이상의 병력을 소멸하기 위한 전쟁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이다. 북한군 제1군단의 제3.4사단은 6월 28일 05시에 서울시내에 돌입 11시30분경 서울을 점령했다. 제6사단은 25일 당일 개성을 점령하고 한강을 도하 28일에는 김포읍을 점령했다. 이에 비해 북한군 제2군단은 한국군 6사단의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계획상 25일 당일 점령이던 춘천을 27일에 겨우 점령하고, 제1군단이 서울을 점령한 28일에도 홍천부근에서 지연되고 있었다.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시켰다. 즉 한강이남에서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자체가 결정적으로 한국군 6사단에 의해서 좌절되어 한국군 주력을 포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지연전으로 미지상군 투입을 위한 여건조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적전술에 있어서 공격작전간 조공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요 [32] 한 것이다. 조공은 주공방향에서 행동하는 부대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투방향이다. 김일성은 ‘별오리 회의’에서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결함 중 “적들의 유생력량을 철저히 소멸하지 못하고 그저 적들의 역량량을 분산시키거나 밀고만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적들에게 다시 부대를 수습하여 반공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33]” 라고 최초 초기전투의 실책을 인정하였다.

#### 4.2.2. 산악전과 야간전투 강조

김일성은 전략적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산악전과 야간전을 널리 벌리는 것 [34] 을 강조하였다. 최초 북한군은 야간기습작전을 통하여 초기 공격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춘천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은 오히려 제6사단의 방어병력이 측방이나 후방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산악지형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병력이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다. 반면에 한국군 제6사단은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하천 교량과 산악지대 접근로 위주로 병력을 배치하여 절대적으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산악전을 강조한 북한군보다 우선적으로 산악적의 장점을 활용하여 방어전투를 실시한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한국군의 야간행동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북한군은 춘천지구전투에서 야간전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전쟁 발발 후 3일간 일몰시간 [35] 을 기준으로 춘천지구 피아의 전투시간을 분석한 결과 20:00 이후의 야간전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일출 전 공격준비사격은 04:00~06:40분 여간에 진행되어 이른 새벽의 기습공격을 하였지만 일몰 이후의 야간공격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적들은 야간전투를 통하여 한국군 타격수단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술적 우세로 승리를 보장하려는 전략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야간전 또한 뜻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별오리 회의에서 “적들의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36] 실토 하였다.



### 4.2.3. 배합전

김일성은 “대부대작전과 소부대 작전을 잘 배합하는 것을 전략적 방침을 관철하는 중요한 방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배합전<sup>[37]</sup>은 작전간 두가지 이상의 전투형태 및 기능을 결합하여 실시하는 작전으로서 군사전법의 기본을 이룬다, 즉, 전투의 형태와 방법, 전투지역은 서로 다르나 부대간 상호작전적 연계를 맺고 하나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으로서 정면타격과 후방교란을 동시에 수행하여 전 중심을 전투지대화 함으로써 속전속결을 달성하는 중요한 군사전법으로 북한군 전술에서는 반드시 활용되고 있다. 춘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은 배합전에 의거 전투 형태면에서는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을 위하여 제76 6 유격부대를 투입하였으나 유격부대의 비정규전 활동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동해안 축선 진후방에서 배합전을 수행했지만 춘천지구 전투에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전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투규모면에서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은 전투편성에서 부터 배합하였으나 협조체제가 대단히 미흡하였다. 주체의 전법으로 북한군의 전술적 우세를 담보하는 효과적인 투쟁방법이라고 주장한 배합전이 춘천지구 전투에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 4.2.4. 각군 및 제병과의 효율적 이용

북한군은 6·25전쟁시 “군사지리적특성과 현대전의 특성들을 기초하여 보병과 땅크병 및 포병간의 긴밀한 협동작전, 강력한 육군의 진격에 배합하여 공군, 해군의 협동작전을 강화하면서 특히 적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의 집중성과 기동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 하였다. 김일성은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지만 춘천지구 전투에서는 적 제2사단은 보전협동 공격은 물론 포병부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3일 동안에 30km 밖에 진출하지 못하였다고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는 기술하고 있다. 특히 포병의 집중성과 기동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병은 사단의 느린 전진속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대대포병이 보병으로부터 3~5km까지 뒤 처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였다.<sup>[38]</sup> 그 결

과 적들이 성공적으로 진격하고 있던 시기, 사단포병 참모부들은 포병의 통합운용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지 못했다. 특히 연대포병과 대대포병이 그러하였다. 보병지휘관들은 연대포병 및 대대포병의 역할을 경시하고 모든 임무를 사단포병에 부여함으로써, 연대포병과 대대포병이 운용되지 않는 상황이 노출되었다. 춘천방면의 포병전력을 비교해보면 <표 5> 같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성과 기동성을 살리지 못하였다.

<표 5> 춘천방면 피아 포병전력<sup>[39]</sup>

항 목	보유량		전력지수	
	한국군	북한군	한국군	북한군
화포 및 박격포 총량	93	211	1	2.1
대전차포를 제외한 화포 및 박격포 총량	87	147	1	1.7
대전차포	12	64	1	5

또한 적 제12사단 제31연대는 6월 25일 오후 늦게 춘천 동북 7km까지 진출하였으나 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되어 진격을 정지한 채 6월 26일 하루 동안 공격을 정지하였다. 적 제2사단과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27일 아침이 되어서야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는 결정적인 실수이며 “다수의 군관요원이 전투시에 스스로 임무를 결심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급지휘관의 명령이 없을 경우 부대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sup>[40]</sup> 김일성조차도 별오리 회의에서 “우리 군대는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로써 싸우는데 익숙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춘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은 군사지리적 특성과 현대전의 특성들을 고려한 각군 및 제병과의 효율적 이용은 대단히 미흡하였다.

## 4.2. 춘천지구 전투에서의 김일성의 분야별 전략적 방침 미 준수

북한군은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하여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는 우세한 전투력으로 속전속결 및 연속적인 타격작전 실시하면서 한국군 우회포위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강조하면서 배합전 및 각군 및 제병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수도 서울을 단 3일 만에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부전선의 춘천지구 전투에서는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분야별 전략적 방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속전속결 및 연속적인 타격작전 실시, 한국군 우회포위하여 유생역량 철저히 소멸 및 미군 증원부대의 상륙을 저지’의 전략적 방침은 사전 준비된 포병화력과 적극적인 공세적인 방어작전으로 차단하였다. 둘째 ‘산악전과 야간전투 강조’사항은 오히려 춘천지구 일대의 산악지형의 잇점과 야간전투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근본적으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봉쇄하였다. 셋째, ‘배합전’의 전략적 방침은 전투형태면에서는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전의 활동사항은 춘천지구 일대에서는 군관민의 일치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투규모면에서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배합은 한국군의 준비된 포병화력 및 공세적인 방어작전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넷째, 각군 및 제병과의 효율적 이용면에서는 북한군은 보병과 땅크병 및 포병간의 긴밀한 협동작전, 강력한 육군의 진격에 배합하여 공군, 해군의 협동작전을 강화하면서 포의 집중성과 기동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북한군의 화력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초기공격간 한국군 제6보병사단의 집중적인 화력타격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북한군의 화력과 기타 제병과의 효율적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춘천지구 전투에서는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의 전반적인 사항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한군은 전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4. 결 론

한국군 제6사단의 춘천지구 전투는 6·25전쟁 초기 전투 중 성공적인 방어전투이다. 앞에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 재분석한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실시하여 전쟁목적을 달성할

것처럼 보였지만 춘천지구 전투에서는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분야별 전략적 방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사전 준비된 포병화력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어작전으로 ‘속전속결 및 연속적인 타격작전 실시, 한국군 우회포위하여 유생역량 철저히 소멸 및 미군 증원부대의 상륙을 저지’의 전략적 방침을 차단하였다. 둘째 춘천지구 일대의 산악지형의 잇점과 야간전투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산악전과 야간전투 강조’사항은 오히려 봉쇄되었다. 셋째, 공세적인 방어작전과 협조된 포병화력으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인 ‘배합전’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넷째, 북한군의 초기공격간 한국군 제6보병사단의 집중적인 화력타격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북한군 ‘각군 및 제병과의 효율적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나 재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속전속결을 위해 한국군의 주력을 한강이북에서 우회포위 격멸하려했던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한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분쇄하였다는 점에서 전술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춘천지구 전투는 춘천이라는 일개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초기 방어전투를 떠나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좌절시켜 북한군의 전쟁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킨 ‘결정적 전투’로 재평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적전술을 고려한 춘천지구 전투분석방법은 북한군의 작전예술 및 전술의 5대 기본원칙에 의한 방법보다는 6·25전쟁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작전예술 및 전술의 5대 기본원칙(집중과 분산, 기습, 기동성 증대,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비밀보장)은 김일성의 항일유격전 경험, 6·25전쟁 경험, 소련군 참전경험에 의해서 전쟁 종료 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005. p. 3.
- [3]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 소장이 증

- 언하였으며, 실제로 러시아어로 된 이들 문서의 사본이 전쟁 중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 고문관이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증거이다.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 11.9.
- [4] 김일성은 스티코프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1950년 3월 30일 평양을 떠나 스탈린을 방문하였으며, 스탈린은 회담에서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 선제남침을 개시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문제의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4월 25일에 귀환하였다. 외무부, 소련자료(2), pp. 23~24.
- [5] 김일성은 6월말에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간을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은 남측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과 7월의 장마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내용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도서출판 열림, 1997. p. 75.
- [6] 북한은 조선전사에서 “제1차 작전방침은 적아가의 역량관계와 적 행동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시간안에 소멸하고 전략적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방침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책, p. 107.
-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35~137. 러시아 국방부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p. 31.
- [8] 김재철은 연구논문에서 2, 3단계 작전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은 1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 3단계 작전에서는 국군의 저항이 경미할 것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수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재철, ‘한국전쟁 초기 춘천·홍천지구 전투의 평가’,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Vol.24 No.1 2009. p. 2.
- [9] 인민군 정보계획은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하였으며, 1987년 4월 28일에 비밀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총 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005. p. 8. 『한국전쟁 상』, 1995, p.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35~137.
- [11] 인민군 제24사단 전투명령 제1호(1950. 6. 22), 조선인민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유성철 ‘나의증언’, 한국일보, 1990. 11. 11.
- [12] 북한은 전쟁의 성격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들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국통일 위업을 완수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다.
- [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pp. 73~78.
- [14] 전쟁 발발시 전선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지상 병력을 한국군은 8개 사단(1, 2, 3, 5, 6, 7, 8, 수도경비사령부), 미군은 일본에 있는 극동군 4개 사단(7, 24, 25, 보병사단, 1기병사단)을 합하여 총 12개 사단과 7함대 해군전력과 극동공군력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책, p. 85.
- [15] 후방지역 공고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후방기지를 튼튼히 하는 것은 “전선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책, p. 96.
- [16] 김일성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기간 중 실천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강조하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전인적 원호사업을 조직하며 인민군대를 계속 증원, 보충하며 전선에 대한 일체 필수품과 군수품의 긴급수송을 보장하며 부상병들에 대한 따뜻하고 친절함 구호사업을 조직”, “공화국남반부동포들은 리승만 괴뢰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말고 그 집행을 태공하며 적의 후방조직을 혼란에 빠트려야 하겠습니까.”,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인민의 편에 있을 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우리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연설을 북한은 전쟁기간 중 혁명적 입장을 반영한 전투적 강령으로 널리 활

- 용하였다. 위의 책, pp. 80~84.
- [17] 북한군 제1군단의 임무는 주공으로써 금천-구화리, 연철-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는 임무였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군인공제회1인쇄사업소, 1995, p. 80.
- [18]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p. 107~108.
- [19] 고 김풍익 중령은 1948년 10월 육군사관학교 특별 7기로 육군 소위에 임관하였으며,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 대대장으로 직무 수행 중 적 전차가 발사한 직격탄에 의해 산화했다. 1950년 10월 30일 충무무공훈장과 1950년 12월 30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중령으로 추서됐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고 김풍익 육군중령을 선정했다. 고 장세풍 소령은 평남 평양 출생으로 평양 송실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 7월 육군사관학교 제5기생으로 입교해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사후 1950년 12월 30일 을지무공훈장이 수여받고 육군 소령으로 1계급 특진이 추서되었다. 국가보훈처는 2001년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고 장세풍 육군소령을 선정했다.
- [20] 북한군 제2군단의 임무는 조공으로써 화천-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인민군 정찰명령 끝 쪽 추가사항: 인민군 제24사단 전투명령 제1호(1950. 6. 22):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유성철, 나의 증언(9), 한국일보, 1990. 11. 11, 앞의 책, p. 80.
-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005. pp 423~430, 『한국전쟁 상』, 1995, p.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56~1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5 등을 참조하여 적전술 개념에 의거 도표 제작
- [22] 당시 제6보병사단은 예하에 제2, 제7, 제19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제16야전포병대대, 공병대대로 편성되었으며, 9338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 431.
- [23] 1950년 3월 25일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 육군본부, 『한국사료총서』 제62권, pp. 120~37~38.
- [24] 제1방어선은 경계진지 전투로 38선 경계진지에서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며, 제2방어선은 주저항선 전투로 주진지 전방에 가용한 화력을 집중하고 강력한 역습으로 가장 완강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진지 전방에서 격멸하도록 하였다. 제3방어선을 최후저항선 전투로 예비진지 방어선에서 전 화력을 집중하고 역습으로 적을 격파하여 이 선을 최후까지 확보하도록 하였다. 방어 목표는 공격해 오는 적의 주공을 진지 전방에서 격파하여 38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육군본부, pp. 127~37~40.
- [25] 화천에서 춘천으로 연결되는 5번 도로상의 모진교는 화천과 춘천을 잇는 다리로 38도선상에 있었다.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반드시 모진교와 5번 도로를 거쳐야만 춘천에 진입할 수 있었다. 모진교는 춘천댐이 만들어진 이후 수몰됐다. 모진교 지역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제6보병사단 제7연대 3대대 9중대장이었던 이래홍 중위는 모진교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지를 구축했다. 모진교를 폭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었다. 당시 국군은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반격을 가해 즉각 북진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모진교는 북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량이었다. 제9중대가 모진교에 지뢰를 설치해 적의 남침을 지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모진교 폭파를 준비하지 않았던 배경이다. 6월 25일 모진교 일대 전투에서 적의 집중화력에 의해 중대장을 포함한 1개 분대 병력이 전사하였다. 6·25전쟁 중 최초로 전사한 소총중대장이다. 2014년 12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은 ‘수도방어에 큰 기여를 하고 모진교를 방어하던 중 전사한 이래홍 육군대위 ‘를 2015년 현충인물’ 12인으로 선정했다.
- [26] 심일의 육탄공격 방법은 자주포 해치를 열고 올 경우 자주포 속에 수류탄과 화염병을 투척하여 파괴하는 방법이며 자주포 내부로 직접투척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쾨플더위에 열기를 참기 어려워 포탑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pp. 97~98. 심일은 자주포 킬러로 불리었으며 1951년

7월 26일 위관장교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상,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 1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됨.

- [2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5』,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등을 참조하여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적진술 개념에 의거 분야별로 작성
- [2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p. 85.
-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 160.
- [30] 위의 책, p. 163.
- [31] 위의 책, p. 165.
- [32] 정병준은 “서울 방향을 지향한 북한군 주공부대들의 공격 속도와 파괴력이 비록 그들이 최초에 의도했던 것에 비해 지체되고 약했다 할지라도, 이 부대들은 서울 정면에서 내려치는 망치의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동측방 공격을 담당한 제2사단, 수원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던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담당해야 했던 망치의 힘을 떠받치는 모루의 역할은 국군 제6사단에 의해 분쇄되었다”고 하였다. 적진술 개념에 의거 사실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다.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p. 728.
- [33] 김일성은 일명 ‘별오리 회의’(1950년 12월 21일, 6·25전쟁 당시 후퇴를 거듭하던 북한군이 중국의 참전으로 다시 진격을 개시하게 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들이 모여 전쟁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한 회의)에서 전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결함 8가지를 설명하였다.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87.
- [34] 김일성은 “산악전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군사지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군사기술적우세를 떠는 미제침략군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진술적우세로써 그것을 타승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투쟁방도로 된다.”고 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야간전은 시계와 사계가 제한된 야간에 적들의 타격수단이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며 제국주의 고용군대인 적들이 야간행동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리용함으로써 침략군의 기술적 우세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진술적 우세로써 타승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위의 책, pp. 90~91.
- [35] 1950년 4월 1일부터 한국은 썸머타임을 실시(4

1~9. 10)하고 있었으며 개진 초 3일간의 강원도 춘천지역의 일출시각은 05:07분이며, 일몰시각은 19:55 이었다. 인터넷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참조

- [36] 조선로동당출판사, 앞의 책, p. 187.
- [37] 배합전은 전투형태면에서는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전투규모면에서 대부대와 소부대를 배합하는 기본형태와 운용제대에 따라 전략적 배합, 작전전 배합, 진술적 배합으로 구분한다.
- [38] 위의 책, p. 307.
-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001, p. 289.
- [40] 위의 책, pp. 164~183.

## [ 저 자 소 개 ]



### 이 성 춘 (Sung Choon Lee)

1986년 3월 전남대학교 학사  
2004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1990년 8월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2013년 8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북한학 박사

현재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교수  
email : korealum@paran.com